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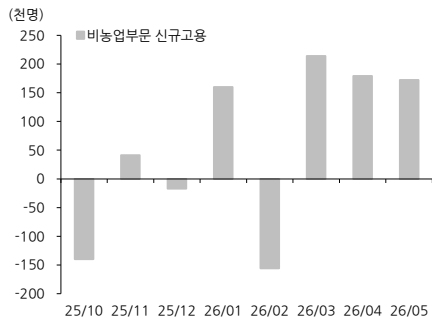
Macro Review

5월 미국 고용: 자세히 보면 약하다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주요 데이터 및 차트]

5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7.2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고용 둔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번 고용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요 서비스업 고용이 약해진 데다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수요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치 상회

5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7.2만 명 증가해 예상치 상회. 3월과 4월 고용도 상향 조정. 지방정부(+5.5만 명) 고용이 크게 늘었고 여가/숙박(+7.0만 명) 고용도 개선됐기 때문. 건설업(+1.7만 명) 또한 양호. 다만 운수창고(+0.6만 명), 금융(-2.2만 명)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 고용은 둔화

실업률은 4.3%,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파트타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실업자는 감소. 다만 영구 및 장기(27주 이상) 실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3.4%) 상승. 정보서비스(+0.9%), 금융(+0.5%) 등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 압력 확대. 주당 평균임금도 전월대비 0.3% 상승

구인수요는 여전히 약하다

고용 침체 가능성 낮음. 상품과 서비스 부문 고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평균 대비 양호하고, 정부 고용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 광의의 실업률(U-6)이 하락했고, 비자발적인 실업자도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

다만 여전히 구인수요는 약해지고 있음. 금번 고용은 고임금 직종보다 저임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났음. 월드컵 특수 영향까지 고려하면 고용 개선 추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움. 평균 실업기간(26.0주)이 2022년 3월 이후 가장 길어졌고 구직단념자도 소폭 증가. 노동시장이 체감상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이 쉽지는 않은 환경이라는 의미. 고용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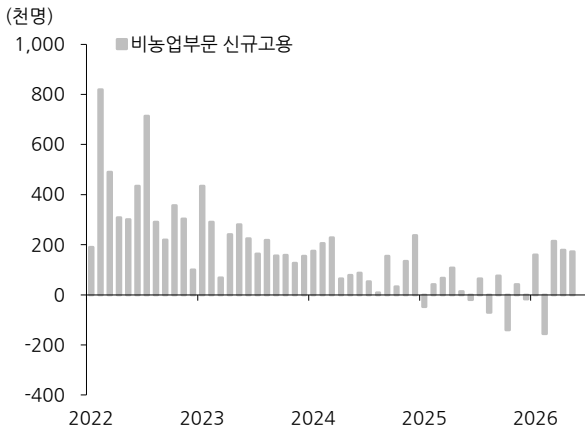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비농업 신규고용	64	-70	76	-140	41	-17	160	-156	214	179	172(▽)
민간	65	-20	68	13	72	-7	180	-148	202	177	120(▽)
상품	-23	-35	11	-20	25	-21	45	-21	33	14	28(△)
서비스	88	15	57	33	47	14	135	-127	169	163	92(▽)
정부	-1	-50	8	-153	-31	-10	-20	-8	12	2	52(△)
실업률	4.3	4.3	4.4		4.5	4.4	4.3	4.4	4.3	4.3	4.3(-)
경제활동참가율	62.2	62.3	62.5		62.5	62.4	62.1	62.0	61.9	61.8	61.8(-)
고용률	59.6	59.6	59.7		59.6	59.7	59.4	59.3	59.2	59.1	59.2(△)
시간당 평균임금	4.0	4.0	3.8	3.9	3.9	3.7	3.7	3.7	3.4	3.6	3.4(▽)
제조업	4.2	4.0	4.1	4.3	4.3	4.4	4.2	4.3	3.6	4.4	4.0(▽)
서비스업	4.0	4.0	3.9	3.9	3.9	3.7	3.6	3.6	3.3	3.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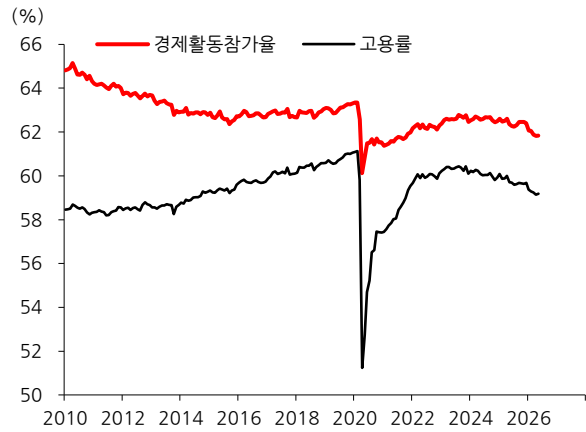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7.2 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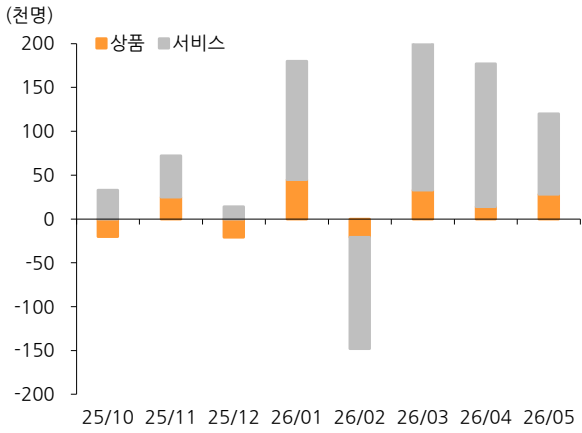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시간당 평균임금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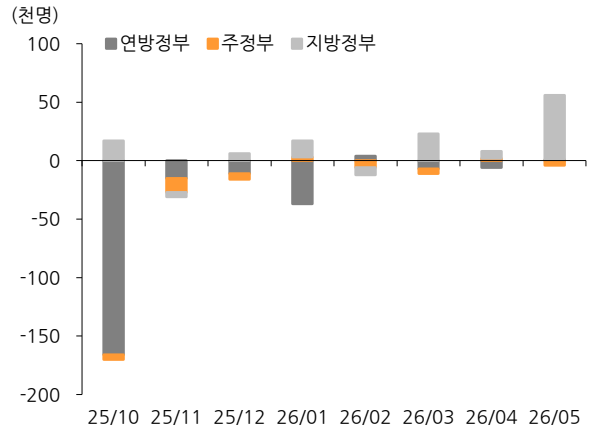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서비스 부문 고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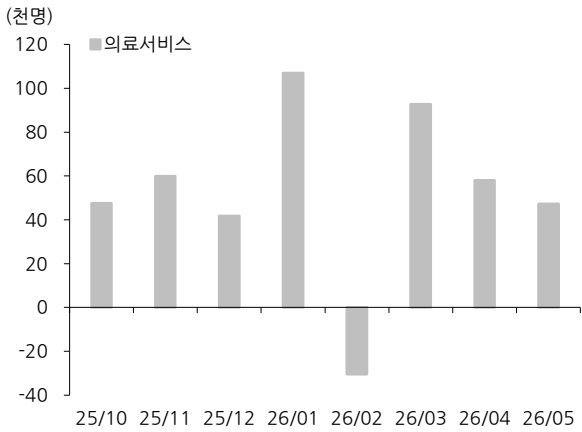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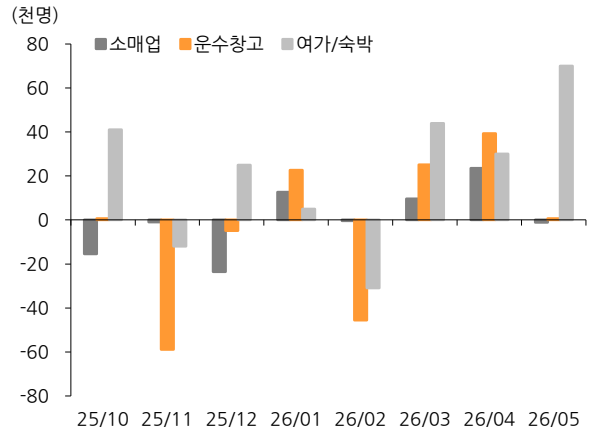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의료서비스 고용이 약해지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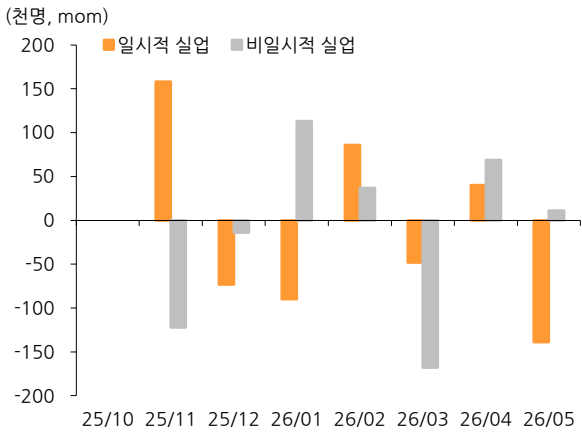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여가/숙박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업 고용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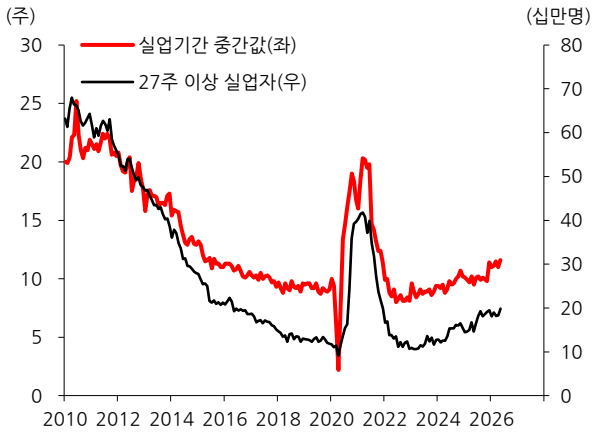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일시적 실업이 줄어든 반면



주: 2025년 11월 지표는 9월 대비 증감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